

사리탑 앞에서 보아야 법의 인연을 알게 된다

적멸보궁 1-양산 통도사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주변의 8개 왕국의 왕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가지고 구시나agara를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사리를 8등분하기로 하였는데, 제천의 천왕들과 용궁의 용왕들도 찾아와 사리를 원했다. 결국 부처님의 사리는 하늘과 사람과 용궁으로 골고루 돌아갔다. 이때 여덟 나라에는 저마다 8만 4천 개의 사리가 돌아갔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 사리를 봉안하고 칠보탑을 세웠다. 진신 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불상이 조성되는 시기까지 예배의 대상이었으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에도 그 의미와 가치가 이어졌다. 사찰에는 '적멸보궁'이라는 전각이 있는데, 부처님 사리를 모신 법당이다.

신라 선덕여왕 재위 646년 왕명으로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 율사는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 사리 100과와 가사 1벌을 받아 귀국한다. 자장 율사는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와 금란 가사를 봉안하고 절을 세웠다. 통도사다. 황룡사와 태화사에도 사리를 봉안했다. 적멸보궁이 있는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三寶·불보, 법보, 승보) 사찰 중 불보종찰(佛寶宗刹)이다.

통도사에 가면

대찰의 사격은 도량으로 드는 오솔길부터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장승들이 길을 장엄하고 있다. 걷는 길과 찾길 두 갈래 길이다. 매표소에서부터 약 500-600m 거리다. 걷는 길의 소나무들은 걸어야 볼 수 있고, 찾길의 소나무들은 늦추는 만큼만 볼 수 있다. 겨울 끝에 선 도량의 풍경은 아직 왜소하다. 하지만 색칠을 기다리는 밀그림처럼 도량의 풍경은 분명한 윤곽을 마쳤다. 봄이 턱 밑에 있었다. 겨울에 묶였던 물이 계곡의 수위를 높여가고, 가지마다 자리를 잡은 꽃들의 배후는 발화 직전이다. 곧 풍경의 빈 곳은 화려한 봄빛으로 채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종림문을 들어서면 부도전이 보인다. 총총하게 자리 잡은 조사들의 내력이 다시 한 번 대찰의 사격을 일러준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면 범종루와 극락전이 보인다. 세월을 버틴 건지 세월이 버틴 건지, 빛깔이 빛깔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빛깔이 다시 무너뜨린 빛깔만이 남은 극락전을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다. 극락전을 지나 불이문을 지나면 대웅전이 눈에 들어온다. 대웅전은 '적멸보궁'이기도하고 '금강계단'이기도 하고 '대방광전'이기도 하다. 전각의 면마다 편액이 걸린 것이 여느 법당과 다르다. 그리고 법당 안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기 때문이다. 대웅전 오른 쪽으로 돌면 사리탑이 나온다. 아득한 그 옛날, 사람과 하늘과 용궁이 나누어 가졌던 부처님 사리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전하고 또 전하여서 이곳까지 모신 부처님 사리다. 자장 스님의 노고와 또 그 이전 누군가의 노고까지, 사리탑 앞에 서면 편하기 그지없는 '나'를 깨닫는다. 통도사에 가면 사리탑 앞에 서보아야 한다.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두 손을 모으게 한다.

통도사 기림의 특징

해발 1050m의 영축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는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큰 뜻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 통도사는 영축총림으로 지정된 이후 선원, 율원, 강원을 두어 한국 불교 최고의 종합승도량으로 자리



통도사 적멸보궁 사리탑. 신라 646년 당나라로 유학했던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100과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통도사를 열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 불보종찰(佛寶宗刹)이다.



연양 자수정동굴나라 내 송운사 미타 대석굴



통도사 입구에 위치한 통도환타지아

한국의 사찰은 각기 나름대로 고유한 가람배치를 통하여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삼보사찰의 경우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통도사의 전각 배치는 금강계단을 정점으로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는 지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데, 세 영역으로 나뉘어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영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한국건축의 공간 가운데 유일한 구조로 통도사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한국건축의 배미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건물군이 가지는 특징을 보면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동서축선이 각 세 개 노진(爐殿) 영역의 중심선인 남북축선과 직교하면서 통합하는 구조이다.

통도사는

해발 1050m의 영축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는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큰 뜻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 통도사는 영축총림으로 지정된 이후 선원, 율원, 강원을 두어 한국 불교 최고의 종합승도량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개산대재, 화엄산림법회,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포교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적멸보궁이란

부처님이 성도 후 최초의 적멸도량회를 열었던 마가다국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금강좌에서 비롯된다. 화엄경에 따르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처음 7일 동안 시방세계 불보살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기 위한 해인삼매 선정에 들었다. 이때 부처님 주위에 많은 보살들이 모여 부처님의 덕을 칭송했고, 부처님은 법신인 비로자나불과 한 몸이 되었다. 적멸보궁은 본래 두드러진 언덕 모양의 계단(戒壇)을 쌓고 불사리를 봉안함으로써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서 적멸의 법을 법계에 설하고 있음을 상징하던 곳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의 적멸보궁은 본래 진신 사리의 예배 장소였다. 처음에는 사리를 모신 계단을 향해 마당에서 예배하던 곳이었는 데 후에 전각을 짓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적멸보궁이 있는데 통도사와 강원도 오대산 중대의 월정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범홍사다.

양산 통도사=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주변보기

<산내임자>

- 함께 돌아보면 좋을 암자를 소개한다.
- ▲자장암(055-382-7081)-금와공으로 유명하다.
- ▲극락암(055-382-7083)-경봉 스님 주석처.

<사찰>

- ▲내원사(말사) 하북면 용인리 055-374-6466
- ▲홍룡사(홍룡폭포) 상북면 대석리 055-375-4177

<가볼 만한 곳>

- 통도환타지아 / 하북면 순지리 055-379-7000 통도사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테마공원. 30여 종의 놀이공원과 수영장, 호수 숙박(콘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족여행지로 좋다.
- 연양 자수정동굴나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052-254-1515 체험학습과, 놀이동산, 동굴탐험, 레저시설을 갖춘 자연 속 테마공원. 길이 2.5km의 자연동굴로, 6500만년 전 화강암으로 형성된 태고의 신비가 이어지는 자수정동굴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연 그대로의 자수정을 볼 수 있다.
- 송운사 미타대석굴(052-264-0077) 자수정동굴나라 내 사찰로 동굴 안에 대웅전 등 법당이 조성되어 있다.

<숙박>

- 통도환타지아 콘도(055-379-7000)
- 연양에덴밸리 리조트(055-392-2114)

<식당>

- 보락이 숯불촌(055-372-1996)
- 부산식당(055-382-6426)
- 통도식당(055-381-4445)

통도사 운영 주요 프로그램

■통도사 템플스테이

사물관람 및 스님의 일상체험, 수행, 명상 및 요가, 숯불보행로 걷기, 사찰 둘러보기, 다도체험, 인경체험, 계곡 물놀이, 걷기명상 등이 있고 4, 5월 중에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이 신설 운영될 예정이다.

■영축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 ▲선재 스님과 함께 하는 자연건강 사찰음식 집 중연수과정 / 3월8일-10일 / 50명 선착순 모집
- ▲명상과 힐링, 세상의 소통 / 3월 6일 개강(11주 과정) / 호흡수행법 및 5분 명상법, 24시간 수행법
-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 / 2기- 4월 5일 개강 알차차림(SAT)명상을 기반으로 한 마음건강 관리 및 자격취득 과정
-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캠프 / 2월 24일-28일 인터넷, 스마트폰, TV 등 미디어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초, 중, 고 청소년 누구나 선착순 50명

■통도사불교대학

- 2013년도 신입생 모집 / 2월 한 달
- 2013년도 입학식 3월 4일 오후 1시

옴마니반메훤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읊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북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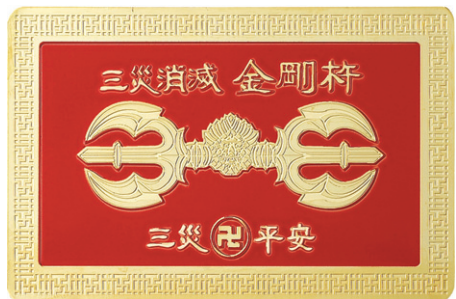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가격: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묶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세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

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전화: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북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북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